

뉴스 라운드업

- 8월 미 비농업 고용 16.2 만명 증가로 예상치(5.6 만명) 대폭 상회, 9월 FOMC 인상 기대 강화 속 국채금리·달러인덱스 동반 상승
- 이란혁명수비대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군이 이란 선박 3 척 타격, 주말 새 군사적 긴장 최고조
- 중국 재정부, 국유 보험사·수출입은행 등에 총 470 억달러 자본 확충 추진, 금융시스템 안정 위한 정책 지원 강화
- 달러/엔 급락에 옵션시장 변동성 7월 개입 당시 수준 근접, BOJ 9월 추가 인상 임박에 엔 캐리 청산 경계감 확대

강한 미 고용지표와 이란-미 군사충돌이 겹치며 월요일 아시아 개장이 밤사이 재료의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8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은 16.2 만명 늘어 시장 예상(5.6 만명)을 크게 웃돌았고, 실업률은 4.1%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이미 인상 사이클에 들어선 연방준비제도로서는 이번 지표가 9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의 추가 인상 명분을 강화하는 재료로 해석됐다. 금리선물시장이 반영하는 9월 인상 확률은 지표 발표 전 50%대에서 65% 안팎까지 뛰었고, 씨티그룹은 금리 인하 전망 시점을 2027년으로 늦춰 잡았다. 이 여파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784%(+1.2bp), 2년물은 4.374%(+3.4bp)로 올랐고 달러인덱스도 99.16(+0.16%)까지 상승했다. 반면 뉴욕 3대 지수는 금리 부담에 소폭 밀려 S&P500과 나스닥이 각각 0.38%, 0.29% 내리며 지난 금요일 장을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Fed가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으나, 정작 지표 자체는 인상 쪽에 무게를 실는 결과여서 정책 갈등이 한층 도드라졌다.

주말 사이에는 지정학 리스크가 한 단계 더 고조됐다. 이란혁명수비대가 미 해군 함정 두 척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군이 이란 선박 세 척을 타격했고, 이란 의회 의장 갈리바프는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더 빠르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경제부는 전시 경제 대응을 위한 '경제전쟁본부'를 신설했고, 앞서 금요일에는 주요 원유 수출 거점인 카르그섬 인근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음도 감지됐다. 다만 국제유가(WTI 91.48 달러)는 아직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가로, 주말 사이의 군사적 충돌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오늘 개장 이후 유가와 안전자산 수요에 이 사태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실제로 지난주 글로벌 머니마켓펀드에는 미·이란 긴장과 채권시장 변동성을 의식한 자금이 461 억달러 순유입되며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이미 커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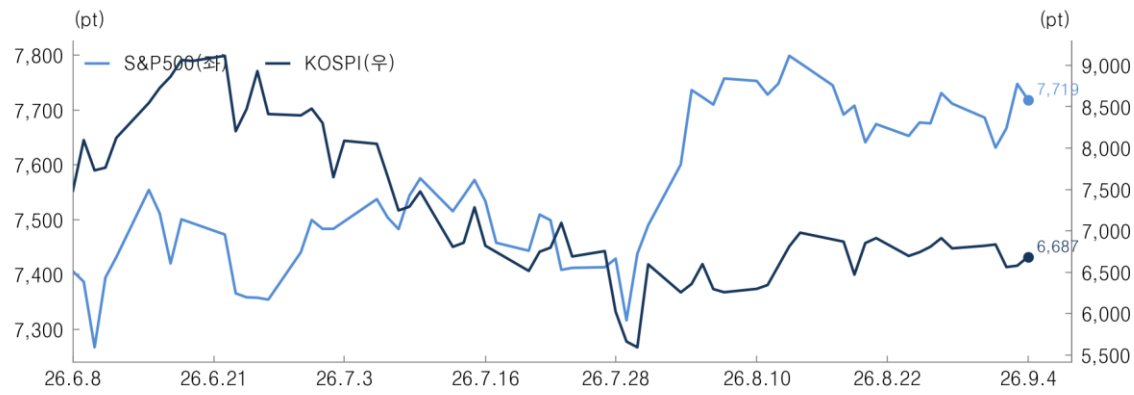
정책 지원 측면에서는 중국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국유 은행·보험사에 총 470 억달러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중국 재 정부는 중국생명 등 3대 국유 보험사에 570 억위안(약 80 억달러), 중국수출입은행에 300 억위안을 각각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금요일 아시아 증시는 코스피(+1.64%), 항셱(+1.74%), 닛케이(+1.26%) 등이 견조하게 올랐는데, 이는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나 주말 이란 사태가 반영되기 전 수치로 하우스가 주목해온 아시아-미국 자산 디커플링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이 흐름이 오늘 아시아 개장에서도 이어질지는 밤사이 쌓인 재료 — 미 금리 인상 베팅 강화, 이란발 지정학 리스크, 중국의 정책 지원 — 를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편 최근 달러/엔이 159 엔대에서 155 엔대까지 가파르게 밀리며 옵션시장 변동성이 지난 7월 정부 개입 당시 수준까지 치솟았는데, 일본은행의 9월 추가 인상(1.25%, 시장 반영 확률 97%) 기대가 굳어지는 가운데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이 재차 부각되는 모습이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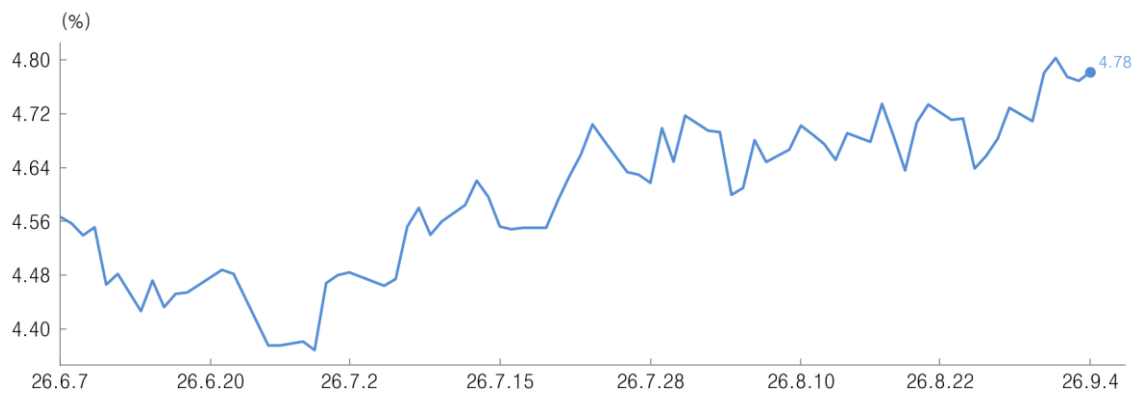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718.60	-0.38%	9/4 종가
	나스닥	26,506.99	-0.29%	9/4 종가
	STOXX 600	649.89	+0.12%	9/4 종가
	닛케이 225	65,020.87	+1.26%	9/4 종가
	CSI 300	4,548.05	-0.10%	9/4 종가
	KOSPI	6,687.21	+1.64%	9/4 종가
	항셍	25,650.87	+1.74%	9/4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9.16	+0.16%	9/4 종가
	달러/엔	156.05	-0.09%	9/7 종가
	유로/달러	1.16	-0.01%	9/7 종가
	달러/원	1,345.50	-0.04%	9/7 종가
	달러/위안	6.71	-0.10%	9/4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784%	+1.2bp	9/4 종가
	미국 2 년	4.374%	+3.4bp	9/4 종가
	일본 10 년	2.912%	-3.6bp	9/4 종가
	독일 10 년	3.339%	-1.4bp	9/4 종가
	한국 10 년	4.361%	-0.2bp	9/4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65bp	-1.0bp	9/3 종가
원자재	WTI	91.48	+0.20%	9/4 종가
	금	4,427.90	-1.00%	9/4 종가
	구리	6.68	+0.27%	9/4 종가
변동성	VIX	14.52	+1.47%	9/4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19 건 HIGH	• 미국 8 월 비농업 고용 +162k 로 예상의 3 배 증가 — 9 월 금리 인상 확률 50% 수준 회복 - 실업률 6.4% 유지, 강한 고용 증가가 연준의 9 월 16 일 정책회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50 으로 상향 조정 - Waller 연준 위원의 전일 비둘기파 발언(금리 인상 선호 낮춤)이 채권·달러 약세 유도했으나, 본 고용 지표로 시장 심리 반전 - 다음 주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최종 판단 기준으로 평가 중 • 미국 10 년물 국채 수익률 1 월 이후 최고 — 선진국 채권 수입 년 만에 고점 경신 - 적자 확대·인플레이션 고착·AI 기업 차입금 급증이 채권 투자자의 위험 보상 요구 증폭, 시장이 이를 '현실의 경고'로 평가 - 글로벌 선진국 채권에서 동시 수익률 상승 — 전 세계 금리 인상 사이클 임박 신호로 해석 •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일부 지역에서 헤즈볼라 세력 소탕 주장 — 전략적 능선 점령, 교전 계속 중 - 지난 금요일, 헤즈볼라 드론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 보복 공습 실시, 민간인 사상자 발생(3 명 사망·23 명 부상, 의료 종사자·여성·어린이 포함) - 이스라엘군이 알리 알 타헤르(Ali al-Taher) 능선의 헤즈볼라 주둔 세력 소탕 주장, 6 월 휴전협정 체결 후에도 교전이 지속 중인 격전지 - 미국 중재 하에 포로 5 명 석방 진행 중 — 신뢰 구축용 조치 • 캐나다 8 월 고용 -41.7k 로 급반전 — 시장 예상 +15k 에서 큰 낙차, 금융시장 충격 - 실업률 6.4% 유지(2 년 저점), 상용직 -35.9k·아르바이트 -5.8k 구성 — 여름철 성수기 채용 이후 조정 국면 반영 - 서비스업 -51.5k 주도(도소매·지원 서비스 중심), 제조업만 +9.8k 증가 — 향후 관세 영향 우려 신호 - 상용직 시간당 임금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2.0%(7 월 +3.0%에서 둔화) — 트럼프 50% 관세 시행 전 노동시장 최종 건전성 평가 • 캐나다 Ivey PMI 64.3 으로 4 년 반 만에 최고 경신 — 고용·가격·재고 모두 강하게 상승 7 월 55.1 대비 9.2 포인트 급등, 2022 년 5 월 이후 최고점, 지표값 50 이상은 경기 확장 신호 - 고용 부문지수 55.0(7 월 52.2)으로 개선, 가격 지수도 급상승 — 실제 고용 통계(-41.7k)와 역행하는 기업 전망 개선 감지 • 금값 1.1% 하락해 주간 약세 — 미국의 강한 고용지표로 금리 인상 베팅 강화, 무이자 자산 매력 감소 - 현물금 \$4,422.91/온스(장중 저점 \$4,364.99), 금리 인상 확률 상승에 따른 기술적 매도 - Newmont 등 대형 금광주 1~1.4% 하락, 광산주 전반 약세 동반 • 이스라엘, 유류세 2 개월 인하 조치 단행 — 휘발유 가격 기록 최고 \$10.41/갤론 돌파 - 어제 재정부 장관 명령, 9 월 1 일 현지 휘발유 가격 8.25 시켈/리터(\$2.74)로 역대 최고 기록 — 종 가격 44%가 '블루' 유류세 구성

권역	요약
	↳ 배경: 미국-이란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유가 급등, 국민 여론 악화에 따른 임시 수정 조치 • 달러/엔 환율, 옵션 시장에서만 변동성 고점 — G10 통화 중 유일, 거래자 위험 회피 신호 ↳ 내재 변동성 급상승하며 시장 참여자 경고음 감지, 현물 환율은 여전히 좁은 범위 내 등락 — 평온함 속 잠재적 경고 신호 ↳ 엔화 주간 +2.5% 상승으로 선진국 통화 중 강한 회복, 금요일 비농업 고용 발표 후에도 달러 상승률 제한적 • 발틱 해운운임지수 3,628 으로 5 년 만에 최고 경신 — 국제 해운 수요 회복 신호 ↳ 케이프사이즈 지수 6,427(2023 년 12 월 이후 최고), 주간 +20.4% 급등 — 대형 선박 운임 강세 주도 ↳ 전체 발틱 지수도 주간 +13.9% 상승, 해운·상품 시장의 수요 회복세 반영
미국 뉴스 80 건 HIGH	• 8 월 비농업취업자 162,000 명 증가 — 예상의 거의 3 배로 연준 9 월 인상 가능성 확대 ↳ 비농업취업자 +162,000 명(로이터 설문 예상 +56,000 명)으로 대폭 상회, 7 월 수정치 +21,000 명(기존 -23,000 명) ↳ 실업률 4.1% 유지, 노동력 참가율 61.6%로 7 월 61.4%에서 회복 ↳ 연준 9 월 15-16 일 회의 25bp 인상 확률 55%→65%, 차주 소비자물가(CPI)·생산자물가(PPI) 발표가 정책 판단의 관건 • 강한 고용지표로 국채 수익률·달러 상승, 휴장 대기로 일부 반락 ↳ 금리 인상 베팅 확대로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 달러 지수 장 초반 강하게 반등 ↳ 월요일 노동절 휴장과 차주 물가 발표 대기로 달러 포지션 조정, 초반 상승분 일부 환원 • 주가 광범위 낙폭 — 고용 호조가 긴축 신호로 평가 ↳ S&P 500 -0.50%, 나스닥 -0.51%, 다우지수 -0.54%, 휴장 전 광범위 낙폭세 • Citigroup, 강한 고용에 연준 첫 금리 인하 시점을 2027 년 6 월로 연기 ↳ 노동시장 견고성으로 단기 금리 인하 필요성 감소로 판단, 2026 년 10 월·12 월 인하 계획 철회 ↳ 2027 년 중 25bp 씩 총 3 회 인하(6 월·9 월·12 월) 전망으로 수정 • 트럼프 대통령, 연준의 금리 인상 시 무역 제한국과의 거래 중단 위협 ↳ 높은 금리로 인한 미국의 불리한 입장을 강조, 연준 인상 결정 시 무역적자국과의 거래 제한 시사 • 미국, 터키 투자은행 제재 — 이란 경제 압박 강화의 일환 ↳ 터키 Golden Global 투자은행과 자회사 2 개에 달러 거래 제한, NATO 동맹국 은행 제재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 처음 ↳ 미 재무부 장관 베네통, 추가 제재 대상 은행 가능성 언급
유럽 뉴스 20 건 HIGH	• 노르웨이 \$2.3 조 국부펀드, 미국채 보유량 \$800 억 감축 제안 ↳ 국부펀드 운용사가 채권지수 내 정부채 가중치를 50%로 인하하는 구조 개편 권고 ↳ 인플레이션 상승과 정부 부채로 인한 채권 시장 약세 속에 포트폴리오 수익성 개선 목표 • 유로존 채권 수익률 4 주 연속 상승, 독일 10 년물 2011 년 이후 고점 근접 ↳ 독일 10 년물 수익률 3.334%(지난 금요일 -2bp 이나 주간 누적 +6bp), 이번 주 최고 수준 기록 ↳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견조한 경제 성장이 중앙은행 인상 압력 확대, 글로벌 채권 매도 국면 심화 • 유럽 주식시장 주간 -0.8% 하락, 중동 분쟁·유가 상승 배경

권역	요약
	- STOXX 600 지난 금요일 +0.1%로 649.88 마감했으나 주간 누적 -0.8%, 변동성 속 약세 마감 - 폭스바겐은 구조조정 합의로 주가 상승 지지, 런던 FTSE 250 도 주간 낙폭 중 금요일 +0.36% 회복 - 독일 극우 AfD, 작센안할트 주 선거에서 44.5% 득표 — 2 년 전 20.8%에서 2 배 이상 급증 - 메르츠 보수연합(CDU)은 18.5%로 급락(2021 년 37.1%에서), 2002 년 이후 보수진영이 주도해 온 주에서 대패 - 연정 구성이 불명확(대부분 정당이 AfD 와의 연합 거부), 정국 불안정성 가중 - 포르투갈 신용등급 A 에서 A+로 상향(Fitch, 1 년 내 2 차 승격) - 재정 규율 강화, 반복된 예산 초과 달성, 경상수지 흑자 지속이 주 배경 - 경제 충격 흡수력 강화를 국제 평가사가 인정한 신호 - 이탈리아 올해 GDP 성장률 약 1% 전망, 정부 추정 0.6% 상회 - 경제장관의 공식 발언(지난 일요일 호숫가 회의 중) - Q2 GDP 0.2% 성장(전분기 대비, 예상 상회), 이월성장률 0.8%로 연중 성장동력 확보 - 아일랜드 국내경제 Q2 -0.8% 수축, 2024 년 말 이후 처음 하락 - 전체 GDP +10.2%이나 역외 기업 영향으로 변동성 높음, 통계 신뢰성 한계 - 건설 약화가 주요 감소 요인, 수정 국내수요 +3.1%(연초 이후 누적)로 기초 경기는 여전히 견조 - 독일 전력망 파괴 행위 적발, 보안 우려 고조(폭발물 발견, 용의자 수색 중) - 지난주 두 건의 의심 파괴 행위로 발전용량 4,200MW 차단, 주요 인프라 취약성 노출 - 서한으로 범행을 자처한 용의자 자택에서 폭발물 의심 물질 발견, 외국 정부 또는 극좌 극단주의자 연루 가능성 - 폭스바겐, 최대 10 만 명 일자리 감축 구조조정 계획 승인 - CEO 블루메, 감독이사회 의장, 니더작센 주 수상의 삼자 협상으로 위기 극복 합의 - 주가는 구조조정 결정에 긍정 반응, 기업 생존력 평가 개선 - 영국 재무부,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평가 할인율 3.5% → 3% 인하 '그린북' 개정으로 자본 지출 승인 기준 완화 - 장기 투자의 순현재가 평가를 보다 유리하게 조정, 투자 촉진 의도 - 프랑스, 기록적 열파·가뭄 피해 농민에 10 억 유로 이상 긴급 지원(\$11.6 억) - 정부 예산 중 지원 결정(내년 예산 편성 중 적자 관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 농무장관 '현 예산 여건 속 대규모 지원' 강조, 기후 충격에 대한 즉각적 대응 - 파운드, 미국 강한 고용지표 발표 후 초기 약세 회복, \$1.3525 부근 안정 - 장기 채권 수익률 하락이 파운드 지지 요인 - 단기금융시장이 향후 6 개월간 영란은행(BoE) 금리 인상 2 회를 선반영(정상화 진행 신호)
중국 뉴스 9 건 HIGH	- 중국 정책금융기관·보험사에 자본 주입 추진 - 어제 중국 재무부가 국유 보험사 3 곳(중국인수보험·중국태평보험·인민보험)과 정책금융기관(중국수출입은행)에 총 870 억 위안 규모의 자본을 주입하기로 발표 - 보험사별 배분은 중국인수보험 350 억 위안, 중국태평보험 70 억 위안, 인민보험 최대 150 억 위안이며 중국수출입은행에는 300 억 위안 배정

권역	요약
	↳ 금융기관의 자본금 충실도 제고 및 리스크 복원력 강화가 목표 • 중국 시진핑 주석, 미국 방문 시 대규모 기업 경영진 대동 추진 ↳ 지난 금요일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 방문 시 대규모 기업 경영진 대표단을 대동할 계획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기업 규제 강화 이후 기업 지도부와와의 관계 개선 신호로 해석 ↳ 미국의 중국 투자에 대한 회의론과 양국 경제 관계 경색 속에서의 투자 기회 제시 전략으로 평가되며,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이 상징적 성격에 중점을 두고 주요 성과 도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중국 닭고기 수출 급증, 브라질과 시장 경합 가능성 대두 ↳ 지난 금요일, 중국이 2025년 순수출국으로 전환한 이후 향후 10년 내 중동 등 브라질의 주요 수출 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 대두 ↳ 중국 국내 닭고기 소비 특성(가슴살 등 특정 부위 기피)에 따른 수출용 잉여 증가가 배경이며, 2025년 기준 중국은 세계 5위 닭고기 수출국(100만 톤 초과)으로 부상 중
일본 뉴스 4건 HIGH	• 9월 일본은행 금리인상 확률 97% 반영, 엔화 40년 저점 이후 급반등 ↳ 9월 회의에서 정책금리 1.25% 인상 가능성을 97% 확률로 시장이 반영 중 ↳ 엔화 약세 베팅(숏 포지션) 청산이 반등 견인 — Citigroup 데이터상 누적 포지션이 약세 관점에서 강세로 전환 중 ↳ JPMorgan, 숏 포지션 청산 시나리오에서 달러-엔을 현재 155 수준에서 142-146 대역으로 평가(강한 엔화 시나리오) • 엔화 옵션 시장 극한 변동성 기록, 7월 개입 직후 경계 신호 돌파 ↳ 1개월 옵션 내재변동성 10.65% 기록(7월 개입 직후 10.5% 상한 돌파, 개입 전 7.15%에서 49% 상승) ↳ 옵션 시장에서 엔화 추가 약세 우려를 강하게 반영 중 — 스쿠(가격 기울기)·리스크리버설(방향성 프리미엄) 지표에서 확인 ↳ 현물이 지난 금요일 155.25까지 내려온 후 옵션 시장의 강한 경계 신호 발생, 시장 참여자들의 깊은 불안감 반영
EM 기타 뉴스 49건 HIGH	• 이란, 경제전쟁 본부 설립하며 추가 공격에 더 고통스러운 보복 경고 ↳ 어제 이란 의회 의장 갈리바프, 미국의 추가 공격에 대해 더 빠르고 강력하며 더 고통스러운 보복을 경고 ↳ 이란 경제부, 전쟁으로 인한 경제 문제 대응을 위해 경제전쟁 본부 신설, 미국 제재로 국가 경제 타격 심화 ↳ 어제 이란혁명수비대(IRGC), 미 해군 함정 2척에 탄도미사일 발사, 미군이 보복으로 이란 선박 3척 타격 • 터키, 2029년까지 인플레이션 28.4%에서 9%로 낮추고 성장 5% 목표 중기경제프로그램 발표 ↳ 어제 부총리, 3개년 정책 로드맵 발표 — GDP 성장률 2026년 3.3%, 2027년 4.2%, 2028년 4.6%, 2029년 5.0% 목표(기존 2026년 예상 3.8%) ↳ 소비자물가 2026년 28.4%, 2027년 21%, 2028년 13.5%, 2029년 9%로 예상, 1년 전 예상 대비 크게 악화(2027년 9%→21%, 2028년 8%→13.5%), 부총리는 이란 전쟁이

권역	요약
	인플레이션 퇴치를 예상보다 오래 끌었다고 설명 ↳ 실업률 2026 년 8.1%에서 2029 년 7.6%로 개선, 추가 일자리 210 만 개 창출 목표, 재정수지(GDP 대비) 2027 년 3.5%→2028 년 3.1%→2029 년 2.8%로 점진적 개선 계획 • 그리스 총리 미초탁스, 내년 봄 선거 앞두고 €22 억 규모 세금 감면·임금 인상 발표·조기선거 배제 ↳ 지난 토요일 미초탁스 총리, GDP 약 1%에 해당하는 €22 억 규모 세제 개혁 조치 발표(2027 년 재정 영향) ↳ 연금자에게 €400 연간 보너스, 공무원 €500 보너스, 저소득 농가 영농세 면제, 3 자녀 이상 저소득 가정 소득세 영세율 등 포함 ↳ 어제 총리, 조기선거 배제 선언, 2027 년 봄 정규 선거 진행 예정 • 세네갈, 은폐 부채 사태로 신용등급을 S&P CC(투기등급 최저)로 인하 ↳ 지난 금요일 S&P, 세네갈의 장기 외화 등급을 CCC+에서 CC 로 2 단계 인하, 정부 계획 중인 부채 재조정으로 인한 채권자 손실 가능성을 높다고 평가 ↳ 2024 년 적발된 수입억달러 규모 은폐 부채로 재정 악화, 이번 주 초 IMF 와 양해각서 체결(3 년간 \$22 억 차입 프로그램)
한국 뉴스 2 건	• 한국 올해 누적 수출 \$7,094 억으로 작년 연간 기록 경신 ↳ 관세청 발표(5 일) ↳ 연초부터 누적된 수출액이 작년 연간 전체 기록을 이미 초과한 첫 사례
인도 뉴스 8 건	• NSE 기업공개 규제 승인 완료 — 9 월 3 주차 상장 목표 ↳ 기업가치 약 470 억 달러, 공모가 1,800 루피 인근에서 투자자 의향 확인 ↳ 9 월 11 일 수요예측(북빌딩) 시작, 15 일 공모가 밴드 공시 예상, 상장 시 인도 기업 시가총액 상위 10 위권 진입 가능 ↳ 10 년 규제 분쟁(부당 거래소 접근 혐의) 대법원 합의로 마무리 — NSE 약 1.55 억 달러 합의금 지불로 기업공개 전 최대 법적 리스크 제거 • 외환보유액 7,408 억 달러로 사상 최고 경신 — 9 주 연속 증가 ↳ 지난주(8 월 28 일 마감) +115 억 달러 증가, 6 월 말 대비 9 주간 누적 +739 억 달러 ↳ 해외 차입금 헤징 할인제도 등 달러 유입 장려 정책 견인 • 인도 정부채 3 주 연속 약세 — 유가 급등·글로벌 금리 인상 기대 압박 ↳ 벤치마크 2036 년 만기 정부채 금리 주간 +5bp·3 주 누적 +20bp 상승(지난 금요일 마감 6.9625%) ↳ 미국-이란 갈등 고조로 유가 급등, 인플레이 우려 재점화 — 글로벌 채권 동반 매도 속에 국내 유동성 지지 효과 제한적 • 정부채 투자자, 단기 차입 공급 확대 요청 — 과잉 루피 유동성 운용처 부족 ↳ 은행·금융기관이 여유 루피 자금의 투자처 확보를 위해 정부에 단기 차입금 공급 확대 건의 ↳ 정부의 회계연도 하반기(9 월~3 월) 공채 발행 일정 조정, 시장 참여자 협의 진행 중
브라질 뉴스 6 건	• 브라질 정부, 재정 규율 강화 신호로 금리 인하 기반 조성 ↳ Moretti 기획예산부 장관, 지난 금요일 복수 인터뷰에서 의무지출(필수지출) 증가세 둔화를 지속 추진하고, 세수 증대만으로는 재정조정이 불가능하다고 강조

권역	요약
	↳ 엄격한 재정건전화·높은 금리(14%) 문제 해결의 중요성 강조 ↳ 금리 인하를 차기 정부의 최대 성과로 제시 • 브라질 8월 무역흑자 \$74 억으로 시장 예상 상회, 원자재 수출 호조 ↳ 수출 \$332 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 수입은 \$258 억으로 9.2% 증가 ↳ 구리광석 수출 223.1% 급증, 원유·콩·커피·유제품 등도 10% 이상 성장 ↳ 글로벌 상품 수요 회복 반영 • 유가 상승과 높은 금리로 레알 강화 여건 조성, 캐리 트레이드 기회 확대 ↳ 6월 이후 유가가 배럴당 \$25 상승, 석유 수출국인 브라질의 외화 수입 증대 ↳ 현재 14%의 높은 정책금리가 레알 투자의 기초 수익률 ↳ 저금리 통화(스위스 프랑·일본 엔·태국 바트·스웨덴 크로나) 차입 후 레알 투자 차익거래(캐리 트레이드) 인기 가능성
멕시코 뉴스 1 건	• 멕시코 6월 고정투자 전월비 +1.3%, 전년동월비 +7.7% 상승 ↳ 기계·설비·신규건설 투자로 구성되는 고정자본투자 지표
남미 기타 뉴스 4 건	• 아르헨티나 2026 경제 성장률 전망 0.6pp 하향, 인플레이션 전망 0.21pp 상향 ↳ 경제 성장률 전망: 2.7% → 2.1%(지난 금요일 중앙은행 설문 기준) ↳ 연말 인플레이션 전망: 29.79% → 30.0% • 베네수엘라 8월 월간 인플레이션 급락에도 연간 534% 극심한 고물가 지속 ↳ 월간 인플레이션: 7월 19.9% → 8월 8.9%로 급락(기저효과 영향) ↳ 연간(전년동기) 인플레이션 534.21% 수준으로 극도의 고물가 상황 지속
프론티어 뉴스 2 건	• 나이지리아 Dangote 정유소, 신규상장으로 \$15 억 조달 — 9월 14일 개시 ↳ 발행가 525 나이라/주(약 \$0.40/주), 발행주식 41 억주 규모 ↳ 아프리카 최대급 기업공개(IPO) 규모가 될 전망(지난 금요일 공개)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